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알릴 ‘새 얼굴’ 공개

- 국민 참여한 ‘캐릭터 공모전’ 최우수상에 김재효 씨의 ‘미디어 가디언즈’ 선정 -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릴 새로운 캐릭터가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국민과의 소통을 새롭게 담당할 공식 캐릭터 발굴을 위해 진행한 ‘방미통위 캐릭터 공모전’에서 최종 수상작으로 김재효 씨의 ‘미디어 가디언즈’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송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 디지털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미통위의 정체성을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로 시각화한 작품이다.

<미디어 가디언즈>



기관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징적 캐릭터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146개 작품이 접수됐다.

‘방미통위의 미션과 비전, 정체성을 담은 캐릭터 개발’을 주제로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6인의 전문가 심사위원이 독창성, 대중성, 확장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최우수상(위원장상)으로 선정된 ‘미디어 가디언즈’ 외에도 우수상에 조원아 씨의 ‘신통이와 방통이’, 장려상에 유성훈 씨의 ‘코미와 커뮤’가 각각 선정됐다.

<신통이와 방통이>



<코미와 커뮤>



국민 참여로 만든 이번 공식 캐릭터는 향후 방미통위 누리소통망(SNS) 채널에서 영상, 카드뉴스 등의 디지털 소통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열쇠고리, 전자기기 배경화면 등의 기획상품(굿즈) 및 디지털 기획 상품(굿즈)으로 제작해 기관 인지도를 높이고, 타 기관 캐릭터와의 협업 등 다양한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멋진 작품을 선물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선정된 캐릭터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소통 메신저로서 활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캐릭터 공모전’ 수상작

담당 부서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책임자	팀 장	이은호 (02-2110-1340)
		담당자	주무관	김정은 (02-2110-1346)



<p>최우수상 (방송미디어통신 위원장상)</p> <p>김재효</p> <p>시상금 1,000,000원</p>	<p style="text-align: center;"><미디어 가디언즈></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p style="font-size: small;"> '미디어 가디언즈'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통신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송·통신 규제 및 정책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체성을 귀엽고 친근하게 표현한 캐릭터입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공공성·공정성·이용자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 대한민국 미디어·통신의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담아냄으로써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을 국민에게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로 디자인 하였습니다. </p> </div>	
<p>우수상</p> <p>조원아</p> <p>시상금 500,000원</p>	<p style="text-align: center;"><신통이와 방통이></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코미와 커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장려상</p> <p style="text-align: center;">유성훈</p> <p style="text-align: center;">시상금 200,000원</p>